



유혜린 (볼로초 4) 박경재 (봉산초 3) 신우선 (볼로초 3) 김정원 (미산초 3)

막 오른 호남예술제

29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제54회 호남예술제 성악초등부 3~4학년들이 양증맞은 입모양과 모습으로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번 호남예술제는 오는 6월30일까지 호남신학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등지에서 열린다.

<성악 본선 진출자 명단 13명>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백지현 (미산초 4) 조민재 (볼로초 3) 장은서 (광주남초 3) 이가현 (진월초 4)

한나라 0 대 5 완패

재보선 민주 부평을 승리... 호남에선 전패

전주 덕진 정동영(無)
전주 완산갑 신 건(無)
부평을 홍영표(民)
경주 정수성(無)
울산북 조승수(勞)

전307표(50.38%)를 얻어, 1만4천919표(32.25%)를 얻은 민주당 이광철 후보를 8천388표 차로 따돌리고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경북 경주에서는 30일 자정 현재 개표율 77% 상황에서 무소속 정수성 후보가 4만1천22표(47.69%)를 얻어,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를 제치고 사실상 당선됐다.

울산 북구에서는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 2만5천346표(49.20%)를 얻어 2만1천313표를 얻은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41.37%)를 여유있게 제쳤다.

시흥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윤식 후보가 2만5천679표(46.08%)를 얻어

2만4천545표(44.05%)에 그친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장흥군 광역의원 제2선거구 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정우태 후보가 총 유효투표 1만466표 가운데 5112표(48.84%)를 얻어 3731표(35.64%)를 얻은 민주당 김성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광주 서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류정수 후보가 총 유효투표 1만257표 가운데 5천551표(54.11%)를 얻어 4천706표(45.88%)에 그친 민주당 고경애 후보를 눌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호남지역 5곳

의 선거구에서 영암군 기초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민주당 최병찬 후보를 제외하고 4곳의 선거구에서 모두 참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그동안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적 무기력과 당내 내분 상태에 대한 호남 민심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함에 따라 지도부 교체론 등 내홍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도 추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출신
테너 김기찬씨
독일 콩쿠르 1위

호남 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던 테너 김기찬(33)씨가 지난 13~19일까지 열린 제6회 독일 파사우국제성악콩쿠르에서 최고 영예인 1위(상금 600만원)를 차지했다.



독일 파사우시가 주최하는 파사우국제성악콩쿠르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 경연대회로 한국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서류 심사를 거쳐 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성악가 75명을 제치고 영예의 1등상을 수상했다.

광주에고 3학년이던 지난 1995년 고등부 최고상을 수상한 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다.

2005~2006 시즌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였던 김씨는 2006~2007 시즌부터 독일 브레머하펜 오페라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브레머하펜 극장에서 관객이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로 뽑혀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

盧前 대통령 오늘 소환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관련기사 4면>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법 사상 처음 검찰에 소환된 뒤 13년 만 만에 검찰청사를 찾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같은 해 12월3일 검찰 수사에 반발하다 구속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가 아닌 안양교도소에서 서울지검에 설치된 '12·12.5·18 및 전직 대통령 뇌물사건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애초 검찰과 버스로 이동하기로 협의했으나 경찰이 경호상의 이유로

29일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

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07년 6월29일 정삼호 전 총무비서관이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된 500만 달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형 건평씨가 조사 받았던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는다.

중수부는 조사가 끝나면 일단 노 전 대통령을 귀가시킨 뒤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수속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내 SI 의심환자 16명

미국 첫 사망자 발생

국내에도 돼지 인플루엔자(SI) 추정 환자 1명이 발견된 데 이어 의심환자 16명이 추가로 신고되는 등 멕시코발 재앙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날 신고한 5명을 포함해 이날 의심 환자

11명이 추가로 신고돼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멕시코와 미국 등을 다녀온 뒤 인후통, 기침, 발열 등의 급성 호흡기 증세를 보였다.

본부는 추정 환자로 확인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 315명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

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 비행기에 함께 탔던 탑승객 중 광주·전남 지역 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세계적으로 SI 인체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264명, 사망자는 160명, 의심환자 3천29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159명은 발원지로 지목된 멕시코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에서도 이날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행자 좌측→우측통행으로

우리나라에서 근 100년간 유지돼 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관련기사 3면>

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대폭 허용되고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

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합평 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퀵코스 9홀 증설



27홀 5월 1일 OPEN!!

합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대표전화 062-277-7777 예약전화 062-277-7777 팩스 062-277-7777 주 소: 전남 담양군 화서면 화서리 11-1